

## 2013년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 구조 재편의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대응

최성희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은 2012년에도 석유 수요 증가세의 둔화를 야기하며 국제 유가를 약세 방향으로 인도했다. 2012년 1월 배럴당 109.52달러를 기록한 두바이유 가격은 성수기인 6월과 7월에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2012년 12월 첫째 주까지 반영한 연평균 가격은 배럴 당 109.10달러로 연초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2년과 비슷한 3.5%내외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되기에, 경제 성장률과 동조하는 석유 소비증가율 역시 2012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제유가변동폭도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다만 지역별 경제성장률 편차가 존재하듯이, 세계 석유 수요 역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하는 11월호 석유시장보고서(Oil Market Report)에 따르면 2013년 세계 석유 수요량은 2012년과 동일하게 50만 배럴 증가를 기록하지만, 이 중에서 40만 배럴(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의 80%)을 아시아·태평양(Asia Pacific)지역의 국가들이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 석유 수요를 주도할 수 있는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성장률(2013년 7.6% 전망: World Bank 2012년 10월 발표)과 최근 역내 석유정제능력과 석유화학시설이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석유 수요시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 이외에, 공급시장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IEA의 수석경제학자(chief economist)인 Faith Birol은 2013년 이후 석유 공급 시장의 구조적 변화의 주인공으로 미국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내석유생산량을 초과하는 소비량을 충당하고자 중동국가로부터 석유수입에 의존하는 미국이 향후 10년 안에 이들 중동지역에서 더 이상 석유를 수입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담당하는 석유수출국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세계 석유 공급 시장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Petroleum economist, 2012년 11월 12일자). 이러한 미국의 석유 수출국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제구조에서 석유의존도가 획기적으로 감

소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는데,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대체에너지 개발 상용화가 미국 경제의 석유의존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석유 시장의 질서 개편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

미국의 석유 수출 가능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석유 수요 지배력에 대한 전망은 기존 세계 석유 시장의 전통적 질서가 개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세계 석유 시장의 전통적 질서에서 미국은 석유 수요 시장을 대표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공급 시장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존과 다른 새로운 에너지시장의 재편 가능성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소비 5위국이자 수입 10위국인 우리나라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우선 아시아·태평양 수요 시장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역내에서의 정제 및 석유화학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정유 및 화학기업의 석유 정제 처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향후 더욱 확대될 역내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수요 규모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장상황에 접목할 업그레이드된 수익창출 극대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내적으로 석유소비량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의 석유의존도 감축 노력은 조만간 세계 경제 구조가 '脫석유'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석유의존도 및 온실가스 감축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야심차게 추진되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고 한다. 한 때 최고의 유망사업으로 각광을 받던 국내 태양광 사업의 경우, 폴리실리콘<sup>1)</sup> 2위의 생산업체가 지난 11월 30일 제 1차 부도 처리된 사실과 대기업들의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보하는 소식은 현재 국내 태양광 개발 사업의 현주소를 대변해 준다. 사업 환경 악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구조 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경제논리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육성의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사업은 단기적 경영 환경 악화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도록 관련 기업과 정부 부처가 공히 각고의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1) 태양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작은 실리콘 결정체들로 이루어진 물질로서, 태양광 사업은 주로 폴리실리콘 생산 사업으로 인식된다.